중심지

작가: ADAM CHRISTOPHER

3
혈통

스토리

ADAM CHRISTOPHER

일러스트

BRUSH SAUCE STUDIO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KEITH RILEY CO, AARON OLSON, ABIGAIL MANUEL,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TAKAYUKI SHIMBO

Blizzard.com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스랄이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던 찰나, 두 손이 그를 침대로 부드럽게 밀어 눕혔다.

"진정해요, 암오쉬."

스랄이 눈을 번쩍 떴다. "아그라." 그가 속삭였다. 그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다. 불현듯 기억이 떠올라 화살이 박혔던 지점을 더듬었다. 부드러운 촉감. 환부는 아물었고 팔의 저린 감각도 사라졌다.

아그라가 입을 열었다. "로코쉬는 뛰어난 민족이에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그대의 체력을 과소평가한 것 같네요." 아그라가 미소를 지었다. "그 상태로 스트롬가드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스랄이 앓는 소리를 냈다. "내가 얼마나 쓰러져 있었소?"

"몇 시간 정도요."

스랄이 굳은 다리를 풀고는 아그라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다. 그는 아그라의 턱선을 어루만지며 안아주었다. "만나서 반갑소, 내 사랑."

"저도요." 아그라가 잠시 머뭇거렸다. "좋은 소식으로 깨웠으면 좋았을 텐데."

스랄이 한숨을 쉬었다. "게야라를 설득하지 못한 거요?"

아그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쓰랄은 쓰라린 어깨를 주물렀다. "어쩐지." 주위를 둘러보니 전형적인 군용 천막이었다. 방 건너편 침상에는 스랄의 방어구가 놓여 있었다. 오그림 둠해머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

스랄은 고원을 가로지르던 여정을 떠올렸다. 의식이 희미할 때 꾼 꿈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졌다. 스랄은 자리를 옮겨 방어구를 걸치기 시작했다. 오크와 인간 사이의 오래된 증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현장에 둠해머의 방어구를 입고 돌아오다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설령 잊을 수는 없을지언정, 과거를 놓아주고 아제로스의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스랄은 커다란 가시 어깨덮개를 걸치고는 끈을 당겨 가슴에 둘러매었다. "게야라와 당장 얘기해 봐야겠소."

"고엘." 아그라가 말했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스랄이 끙 앓는 소리를 냈다. "그래도 내가 온 건 알고 있겠지?"

"물론이죠. 게야라가 순찰대를 보내 그대를 찾은 거예요. 스트롬가드가 치료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스랄은 장화를 신기 시작했다.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구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접견도 허락 안 할 거예요."

"두고 봐야지." 스랄이 말했다.

스랄은 아그라에게 바짝 붙어 기지의 회랑을 지났다. 두 코르크론이 지키고 있는 방문 앞에 이르자, 코르크론은 본능적으로 비켜주며 스랄을 들여보내 주었다. 다나스가 보랄러스에서 한 말은 사실이나 다름없었다. 스랄이 굳이 알아보지 않은 것일 뿐, 코르크론은 대족장이 없는 한 계속해서 그를 따를 터였다. 의회실에 들어서자 게야라가 지도로 뒤덮인 탁자 주위로 다른 두 오크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현 코르크론 장군인 탈가르와 회색 수염이 자라난 녹색 피부의 전사였다. 스랄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이트리그!" 스랄이 큰 소리를 내며 오랜 친구를 맞이했다. "검은바위는 여기 무슨 일로 왔소?"

아이트리그는 스랄이 뻗은 팔을 꽉 잡아 주었다. "스랄 당신만 외교 임무를

스랄은 고원을 가로지르던 여정을 떠올렸다. 의식이 희미할 때 꾼 꿈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졌다. 스랄은 자리를 옮겨 방어구를 걸치기 시작했다. 오크와 인간 사이의 오래된 증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현장에 둠해머의 방어구를 입고 돌아오다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수행하는 건 아니라오. 아무튼 와줘서 기쁘구려. 당신의 조언이 도움이 될 테니."

게야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다. "아이트리그 님은 물러나라고 하시더군요. 고원의 들판에 흩뿌려진 제 동족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게야라의 시선과 스랄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혀들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 속에서 자신을 자주 사로잡았던 불꽃을 볼 수 있었다. 게야라는 여러 면에서 자신을 너무 닮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통솔권은 제게 있습니다." 다분히 아이트리그를 겨냥한 말이었다. 이내 게야라가 스랄을 향해 돌아섰다. "고엘, 당신의 조언이 필요했으면 어련히 알아서 연락했을 겁니다."

스랄은 꿋꿋이 버텼다. "너무 늦게 찾은 것 같아서 미안하오. 하지만 게야라 그대와 긴히 할 말이 있소." 스랄이 배우자를 향해 손짓했다. "이야기는 모두 아그라에게 들었을 테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더군요. 문제는 최악의 시기를 골라서 오셨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시기를 고를 수 없었소. 그렇지만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게야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도와드릴 겁니다..... 스트롬가드를 처리하고, 제 백성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스랄이 아이트리그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늙은 오크는 고개만 저었다. 게야라가 검은바위 족장의 조언을 구할 정도라면 상황은 필시 나쁠 게 분명했다. 그는 아이트리그와 같은 방식을 택했다. 게야라를 협박해 협조를 끌어낼 생각은 없었다. 협상을 하러 온 거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오." 스랄이 지도를 가리켰다. "서로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소."

게야라는 미동도 하지 않고 스랄을 응시했다. 턱 뒤쪽 근육이 움찔거렸다. 이내 마음을 다스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온 이후로 스트롬가드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게야라가 지도에서 스트롬가드의 위치를 가리켰다. "포식동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건 피차일반이었죠. 그래서 수를 줄여 서로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나스트롤베인이 스톰윈드로 가게 되면서 질녀인 마란을 섭정으로 임명했죠.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여자가 7군단 예비군을 모으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녀는 탁자 위로 예비군을 상징하는 모형을 여러 개 던졌다. "포식동물로부터 농장을 보호하는 스트롬가드 군을 돕기 위해 불렀다고 해명했지만, 얼마 안 가 순찰대가 기지에서

"애석하게도 시기를 고를
수 없었소. 그렇지만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오."

게야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도와드릴 겁니다.....
스트롬가드를 처리하고,
제 백성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점점 더 먼 곳으로 행동반경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우호적이었던 양측 군대의 만남은 폭력으로 이어졌죠. 오늘의 교전으로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됐습니다. 섭정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은 도발만 할 줄 압니다." 탈가르가 말했다. "여흥으로 즐기는 족속이죠."

"저쪽에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게야라가 말했다. "동족의 안전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은 코르크론을 불러 방비를 강화하는 것뿐이었지요." 게야라가 탁자 위에 다른 색깔의 모형을 놓았다. 모형은 망치 주둔지 옆에 내려앉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스랄이 한숨을 쉬었다. "마란도 명백한 위협 행위로 인식했겠지만." 그는 탈가르를 노려보았다. "두 군대가 모이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만 생길 뿐이오. 다른 방법이 있소."

게야라가 웃음을 흘렸다. "알려 주시지요."

"대화." 스랄이 답했다. 그가 아이트리그를 향해 손짓했다. "외교. 협상. 지금 여군주 제이나 프라우드무어도 스트롬가드에서 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소."

"그게 잘도 풀리겠습니다." 게야라가 응수했다. "마란 트롤베인은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궁수들에게 말을 맡기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죠. 말했지만 그 여자는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스랄이 말했다.

"스트롬가드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탈가르가 말했다다. "이번엔 단순한 교전이 아닙니다. 영토를 점령해 국경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선연합니다."

아그라가 탁자로 다가왔다. "망치 주둔지를 공격할 계획이라고요?"

"겁쟁이들에게 그럴 배알은 없죠." 게야라가 답했다. "저들의 목표는 고셰크 농장입니다." 게야라가 지도를 가리켰다. "마란은 우리 농부들을 쉽게 얕잡아보고 있는 모양인데,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스랄에게로 향했다. "장담컨대 7군단을 등에 업어도 스트롬가드는 마그하르의 힘 앞에 금방 무너질 겁니다. 코르크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겠죠. 오크가 아닌 다른 사람이겠지만."

스랄은 활활 타오르는 게야라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과 너무나 닮았지만, 또 너무나 달랐다. 기실 본인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스랄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게야라는 외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아무래도 다른 세상,

다른 시간의 길에서 왔기 때문이이라. 게야라는 가혹한 옛 드레노어의 방식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화신이었다.

스랄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게야라, 스트롬가드가 함락되면 얼라이언스의 전력이 출동할 거요. 다른 선택지는 분명히 있소."

"외교 말입니까?" 게야라가 툭 던지듯 말했다. "당신은 그 외교 임무 수행 도중에 저들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적이 우리 민간인을 습격해 학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교를 논하시는 겁니까? 마란 트롤베인은 우리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기는 길만이 평화를 이룩할 방법이라고 믿고 있죠."

스랄은 게야라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머리로 열기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럼 가르쳐 주면 되겠지! 화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 보란 말이오. 해보란 말이오! 더 나은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걸 섭정에게 증명해 주면 되잖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고엘?" 게야라가 소리쳤다. "휴전에 찌들어 안온해지셨습니다. 물러졌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스랄은 턱에서 힘이 풀렸다. "지금 뭐라고 했소?"

하지만 게야라는 듣지 않았다. "제가 살았고 듀로탄이 죽은 건 굴레를 벗어난 증오를 보고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전쟁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바로 이 땅에서 오크를 노예로 부렸습니다. 아그라는 당신이 오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걸친 갑옷의 유산을 잊어버린 겁니까, 형제여?"

스랄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가 눈을 깜빡거렸다. 오만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만!" 아그라가 게야라를 침묵시켰다. 그녀가 스랄의 팔에 손을 얹었다. 스랄이 고개를 돌려 아그라를 보았고.....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었으니까.

"형제라고?"

아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엘, 그러니까....."

"알고 있었소?" 스랄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알고 있었군."

스랄은 아그라를 밀어내고는 의회실을 빠져나갔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고엘?" 게야라가 소리쳤다. "휴전에 찌들어 안온해지셨습니다. 물러졌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스랄은 턱에서 힘이 풀렸다. "지금 뭐라고 했소?"

성채로 돌아온 이후, 제이나는 다나스의 조카를 설득하지 못하면 내일 당장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에서 침울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하염없이 줄어들었고, 결국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마란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오늘 스트롬가드는 피를 보았고, 마란의 감정 역시 자연스럽게 고조됐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제이나는 기회가 떠나간 건 아니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처소 문을 열고 들어선 제이나는 지치고 다소 당황한 표정의 마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까.....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말이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제이나가 말했다. "그래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군요."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듣는 귀가 없는 곳으로." 마란이 말했다.

마란은 제이나를 길쭉한 형태의 석실로로 안내했다. 조명이라곤 마란이 든 횃불과 제이나의 지팡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전부였다. 스트롬가드 요새 아래 깊숙이 묻힌 고대의 방이 분명했다. 이곳으로 이어지는 긴 나선형 계단은 수 세기 동안 수없이 사용되면서 닳았고, 석실의 벽은 위쪽 도시와 모양과 크기가 다른 벽돌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란은 걸음을 멈추고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렸다. "저희는 아라소르의 후손이에요. 이곳에는 옛 세계의 마지막 메아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장소죠. 편하게 얘기하기에 더없이 적합하고요."

제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소라딘이 검은 늑대의 모피를 두른 아버지의 환영을 보고, 최초의 인간 왕국을 세웠다는 전설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러자 마란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의무가 있고, 또 그런 기대를 받고 있죠. 잊지 말아야 할 역사예요." 마란이 한숨을 내쉬며 제이나에게 돌아섰다. "아까 나눈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만 먼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마란이 구겨진 양피지를 꺼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제이나의 눈이 커졌다. 다나스에게 보낸 전갈이었다.

"제 첩보단장 자타시아는 활의 명수랍니다. 제이나 님의 오크 친구도 알았을 거고요. 귀중한 말을 잃는 건 안타깝지만 전쟁에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법이죠."

제이나의 지팡이 빛이 조금 더 밝게 빛났다. "마란. 신중히 처신해야 할 거예요."

마란은 무시로 대응했다.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 도와주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라면 삼촌이 우릴 어떤 상황에 몰아넣었는지 이해해 줄 줄 알았으니까."

허공에 마란의 말이 맴돌았다. 제이나는 잠시 침묵하며 할 말을 골랐다.

"마란.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군요. 진심과 선의를 담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마란은 양피지를 꽉 움켜쥐었다. "그럼 진솔한 조언을 해 주세요."

제이나는 생각에 잠겨 입술을 깨물었다. 이젠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한다.

"마그하르는 전투로 단련된 민족이고, 코르크론은 호드의 최정예 전사예요. 마그하르와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거예요. 백성을 존중하고 보살피고 싶다고 하셨죠. 게야라와 강화를 맺어 양측의 백성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우정을 발판으로 삼아서."

마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전 아제로스 최강의 마법사, 로데론 전투에서 얼라이언스에 승기를 안겨준 마법사와 같은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패배를 점치시는 건가요?"

제이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전 마법사가 아닌 조언자로서 왔어요, 마란."

마란은 잠시 제이나의 눈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석실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이내 그녀는 멈춰 서서 무릎을 꿇었다. 횃불의 불빛이 바닥에 놓인 크고 어두운 덩어리를 드러냈다.

제이나는 마란을 따라갔다가 덩어리를 확인하고는 헉 소리를 냈다.

늑대의 사체였다. 코르크론 기수의 고삐를 착용한. 오크 탈것에 관해서는 스랄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 있었다. 특히 서리늑대 부족에게 오크와 늑대의 관계는 규율과 조련이 아닌 존중과 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야말로 거대한 생명체였다. 횃불의 불빛에 두꺼운 검은 모피가 번들거렸다.

마란은 일어서서 횃불을 벽에 걸고는 허리춤에서 칼날이 구부러진 단검을 꺼냈다. 그녀는 늑대의 뒤통수를 잡아 들어 올렸다. 턱이 벌려지면서 단검처럼 날카로운 하얀 이빨이 드러났다.

"제 백성은 망가졌어요." 마란이 작업에 착수하며 말했다. "스트롬가드에 들이닥친 온갖 분쟁을 마주하며 배웠죠. 한동안은 이 성에 머무르고, 그러다 교외로 몸을 피하고, 아군의 보루에 위탁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전 부모님을 여의었고, 삼촌이 몇 번이고 전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역사만

"제 백성은 망가졌어요." 마란이 작업에 착수하며 말했다. "스트롬가드에 들이닥친 온갖 분쟁을 마주하며 배웠죠. 한동안은 이 성에 머무르고, 그러다 교외로 몸을 피하고, 아군의 보루에 위탁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전 부모님을 여의었고, 삼촌이 몇 번이고 전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역사만 읽었어요. 이 성채에서는 아라소르의 유산이 얼마나 조금밖에 안 남았는지를 깨닫고 무력감을 실감했죠."

읽었어요. 이 성채에서는 아라소르의 유산이 얼마나 조금밖에 안 남았는지를 깨닫고 무력감을 실감했죠."

제이나는 늑대의 가죽을 벗기는 마란의 모습을 경악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속이 메슥거렸다.

"달라란의 멸망으로 결국 또 하나의 인간 왕국이 사라진 셈이 됐죠. 최근 들어서는 인간 왕국이란 것도 알아보기 어렵게 됐지만. 길니아스는 오랜 세월 역병에 시달렸고, 알터랙이나..... 로데론에서 있었던 일은 언급을 피하고들 있죠."

마란이 늑대의 근육과 뼈에서 가죽을 떼어내자 끔찍하게 찢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4차 대전쟁에서는 제이나 님도 실각하실 뻔했잖아요. 그리고 스톰윈드는..... 한때 변방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이끌고 있죠. 얼라이언스 내에서 우리가 가져갈 이권도 멋대로 정하고 있고요."

스트롬가드의 섭정은 늑대의 허리에서 조심스럽게 가죽을 끊어내 피로 점철된 모피를 들어 올렸다. 마란은 칼을 집어넣고는 벗겨낸 가죽을 오래된 아라소르의 표시석 위에 올려놓았다. "백성은 우리에게 힘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 힘을 계속 동맹에 팔고만 있어요. 스트롬가드 주민이 굶주리는 동안 저들의 군대에 곡물을 보냈죠. 저들에게 우리의 전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전사들의 유산을 알지 못한 채 자라요. 우린 오우거든, 비밀결사대든, 악랄한 자들에게 힘겹게 맞서고 있습니다."

마란은 뒤로 물러나 다시 횃불을 거두었다.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제이나는 마란의 피부가 땀으로 번들거리고, 숨이 차서 가슴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보였다. 섭정은 본인이 가죽을 벗겨낸 당사자임에도 그 앞에 조용히 서서는, 모피를 내려다보며 도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실을 깨달은 제이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란은 단순히 숙련되지 않은 통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였다.

신봉자였다. 제이나도 환상으로만 알고 있던, 영광스러운 과거를 믿는 신봉자. 마란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황금기에 취해 삐뚤어진, 나아가 위험한 향수에 젖어 있었다.

마란은 제이나를 바라보았다. "아라시 고원은 인류의 것입니다. 고원은 위대한 제국의 심장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핏줄의 것이란 말입니다, 제이나 님.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왕국을 수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권리니까요. 소라딘께서 싸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린, 저는..... 그분의

명맥을 계승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제이나는 경멸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다. "마란, 이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절 도와주시겠어요, 제이나 님?"

제이나는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저었다.

이 순간 마란은 공격에 대비하듯 바짝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해해 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이나는 날카로운 따끔거림을 느꼈다. 무언가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돌바닥에 떨어졌다. 손을 목으로 가져가자, 손가락 끝에 피가 묻어 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어떤 활잡이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복도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검은 두건이 달린 긴 망토를 두른 여인. 스랄을 저격하고 제이나의 편지를 가로챈 활잡이 자타시아였다.

제이나는 딱딱한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손에서 떨어져 나간 지팡이가 데굴데굴 굴러갔다. 어떻게든 고개를 들어 마란을 응시하려 했지만, 세상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란은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침을 집어 들고는, 늑대 가죽을 챙겼다. "죽지는 않겠지? 얼라이언스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간 곤란해져."

궁수는 미소를 지었다. "바다의 딸은 오늘 밤 푹 잠들 겁니다."

그렇게 제이나는 어둠 속으로 잠겼다.

작가 소개

*Adam Christopher*는 *Star Wars: Shadow of the Sith* 및 *Stranger Things: Darkness on the Edge of Town*을 집필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CBS TV 쇼 *Elementary*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Dishonored*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의 타이인 소설을 맡기도 했다. *Adam Christopher*는 *Archie Comics*의 21세기형 슈퍼히어로 *The Shield*의 공동 제작자이며, *Image Comics* 소속 *Greg Rucka*와 *Michael Lark*의 *Lazarus* 시리즈 및 *Big Finish*의 *Doctor Who* 세계관 각본을 맡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tar W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기념일 앤솔로지 시리즈에 기고자로 참여했으며, IDW의 전연령판 *Star Wars Adventures* 만화 각본을 담당하였다. *Adam*의 원작 소설로는 *Made to Kill*과 The *Burning Dark*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데뷔작 *Empire State*는 *SciFi Now*와 *Financial Times*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